

원불교의 미래 교화정책

박인해 교화분과 전문위원

- - 차 례 - -

- 들어가는 말
- 원불교의 미래 교화정책
 1. 정보사회의 정의(定義)
 2. 정보사회의 특징
 3. 한국의 21세기 정책제언
 4. 타종교의 미래 교화정책
 5. 원불교의 미래 교화정책
- 맺는 말

■ 들어 가는 말

새 천년인 서기 2000년을 1년 남짓 남긴 시점에서 미래의 교화정책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미래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간 계속될 정보사회로 규정하고자 한다.

정보사회는 그동안의 사회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체제로써 그 엄청난 변화는 우리의 의식과 생활의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화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회에 적절한 새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보사회와 그 특징, 타 종교의 미래 교화정책,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1989년 발족됐던 21세기위원회가 주장한 한국의 21세기 정책제언 등을 알아 보고 이들을 분석 종합하여 원불교의 미래 교화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미래사회의 원불교 교화정책

1. 정보사회의 정의(定義)

정보사회는 한마디로 주요 인간 활동이 정보 및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뜻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가르킨다. 이 때 정보라 함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을 가르킨다. 여기에는 책이나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지식은 물론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와 같은 영상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과 라디오와 같은 음성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들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다중매체)가 등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정보사회의 이해, 권태환 조형제 편, 미래미디어)

2.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로 몇 가지만 열거해 본다.

◎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

- John Naisbitt

- 1) 공업위주의 산업사회에서 컴퓨터를 주축으로 하는 정보사회로
- 2) 과학기술 일변도에서 하이테크 (high-tech: 고도의 과학기술),
하이터치 (high-touch: 고상한 정취)의 균형으로

- 3) 국가경제에서 명실상부한 지구촌경제로
- 4) 단기기획에서 장기기획으로
- 5)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로
- 6) 조직체의 도움에서 벗어나 자조(自助)·자립(自立)으로
- 7)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에서 참여민주주의로
- 8) 피라밋형 계층조직구조에서 그물형 망조직구조로
- 9) 사양산업(斜陽產業) 도시에서 성장산업(成長產業) 도시로
- 10) 양자택일식 선택에서 다종선택으로

● 정보사회의 10대 변화

- 로버트 B.터커

- 1) 스피드화 2) 편의화 3) 세대의 물결 4) 다양성 5) 라이프 스타일
- 6) 가격파괴 7) 가치부가 8) 고객 서비스 9) 테크놀러지 10) 고품질

●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모습

-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기존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중심적 특징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대량 생산기술(산업기술)	지식 집약적 다품종 소량 생산기술(정보통신기술)
정부정책	시장보호와 정부개입 :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자유화와 규제완화 :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정보고속도로)
산업구조	제조업, 재화취급 중심	서비스업, 정보처리 중심
기업활동	독점과 수직적 통합	경쟁과 네트워크적 협력
고용구조	육체노동자(기능공) 중심	경영자, 전문직, 기술적 중심 판매직, 사무직의 비중 증가
노사관계	연공급, 직무급 중심 중앙집중적 단체교섭	직능급중심 : 분산적 단체교섭
국제관계	냉전체제, 보호주의 무역	시장의 세계화, 기업활동의 세계화

3. 한국의 21세기 정책 제언

- 1)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핵가족화 등에 대비한 노인복지 및 가족복지의 증대, 여성고용의 평등 위한 입법조치의 강화
- 2) 교육체제의 개방화 및 민주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평화교육 실시

- 3)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첨단 정보화사업의 도입
- 4)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하이테크 응용제품을 더욱 발전시켜 잠재수요를 개발하고 부가가치가 강화된 하이터치 제품 개발 주력
- 5) 대체 에너지 개발
- 6)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한 우량농지 확보와 해양의 목장화
- 7) 농촌경제의 다원화를 위한 광공업부문의 개선 및 관광 레저산업 육성
- 8) 사회문제를 시민과 공동으로 해결하는 정부
- 9) 통일에 대비하여 분단극복을 위한 문화의 통합 및 한민족 공동체의 삶의 정신적 토대 형성

4. 타 종교의 미래 교화정책

- 1) 기독교
- 2) 카톨릭
- 3) 불교

5. 원불교의 미래 교화정책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종교가 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오래전 과거로부터 가장 중요시 해 온 종교교화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어느 시대 보다도 지금의 정보사회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나 교단은 아무 역할도 아무 교화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사회에는 모든 학문과 기술 등이 급변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평생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레저가 크게 확대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취미활동 등의 기회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종교단체나 문화센터 등을 많이 찾게 될 것이며, 통신기술의 발달은 쌍방향의 통신을 가능케하여 개인의 사회참여, 정치참여가 용이해 지고 참여의식이 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 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역자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교화대상으로 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교당의 문제로 생각하는 큰교화, 열린교화로의 의식의 전환이 되어야 하며, 교당을 초창 당시 본래 대종사님이 생각하셨던 공회당으로 생각하여 정례법회는 물론 관·혼·상·제 등 모든 의식이나 수시법회나 무슨 회의 등을 하는 공공 장소로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대종경 전망품 26)

앞으로 교당은 문화센터로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센터가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사회참여를 리드하는 사회참여 본부가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현실적으로 법당과 숙소를 분리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두번 법회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교당을 완전히 개방하여 지역민들이 부담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질(質)의 교회 추구

정보사회는 무한 경쟁사회이다. 그것은 세계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 모두가 완전히 개방된 사회 속에서 최고만이 살아남는 사회를 뜻한다.

앞으로는 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이나 한 나라만을 상대할 수 없다. 누구든지 어떤 기업 어떤 단체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전세계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은 생존을 위해 최고가 되도록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종교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도 이제는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동안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서 다른 종교와의 경쟁없이 무난히 발전해 온 종교도 이제는 세계의 모든 종교와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멀티미디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아무 제약 없이 쉽게 보던 하나로 전세계의 모든 종교의 방송을 비교하여 보다 좋은 내용을 선택해서 청취하게 되므로 자연히 질이 낮은 종교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솔성요론 2조 :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그러므로 앞으로 정보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교학정책은 양보다 질을 중

시하여 하나를 해도 세계 최고가 되도록 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럴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의 인재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소수 정예화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적당히 교육하는 것보다 적은 수라도 신중히 선발하여 철저히 최고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연구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최고의 교회 상품을 생산해 내는 교회연구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교회연구소가 교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연구소를 크게 강화하고 교역자 능력 개발을 위한 교회학교 운영, 교회정보은행 운영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다양한 교회 전개

정보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다원적인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동시에 다양성과 다원적 가치관을 조장할 때 사회 발전도 가능해 진다.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다양성을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 교외의 캐롤 스트립과 베펄로 글로브의 자치 단체는 1984년 '획일금지법'을 제정해서 택지개발업자가 세우는 건물에 대해 내장은 같더라도 외양은 다르게 하도록 법제화시켰다. 버틀렛 지방에서도 1988년부터 주택이 네 채 이상이 나란히 들어설 경우 각각 외양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시에 똑같은 집들이 나란히 있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고방식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억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가서 처음 느끼는 충격의 하나는 다양성이다. 슈퍼마켓 같은 곳을 가보면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것 보다 수십 배 이상의 다양한 제품이 진열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다양한 자동차와 다양한 건물에 놀란다. (신경영마인드, 윤은기, 도서출판 무한)

이제 앞으로는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획일화 표준화된 사고나 가치관으로는 무슨일에든지 성공할 수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이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다.

종교교회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이제 교단이나 성직자

가 정해 준 몇 가지의 길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식의 종교활동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는 교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종교는 외면당하지 않을 수 없다.

원불교도 앞으로 교화해 감에 있어서 교도의 입장에서 교도의 요구와 신앙 수행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역자가 권위의식을 갖고 안이한 생각에서 자신이 편리한 대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대중을 이끌고 갈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교당을 등지게 될 것이다.

교당을 찾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다양하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건전한 친교를 원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 소원성취를 하고자 하는 사람, 수행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그리고 이제 막 입문한 사람도 있고 입교한 지 몇십년이 되어 아주 깊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단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정전 법위등급, 대종경 교의품 23 - 근기따라 법을 베푸는 대종사님 교화법

4) 문화·예술 교화

1990년대 말기에 가면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그 우선 순위에서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예술은 여가를 즐기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스포츠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같이 비상한 경향은 이미 공연예술이나 영상예술에 대한 폭발적인 호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1965년 이후 박물관을 찾는 미국인의 숫자는 연간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증가했고, 일류급 실내악단협회의 회원수는 1979년의 20개에서 1989년에 578개로 늘어났으며, 1970년 이래 미국의 오페라 청중은 3배로 늘어났다. 미국과 유럽에서 태평양 연안지역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이 발달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술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메가트렌트 2000, 존 나이스비트, 한국경제신문사)

흔히 미래 정보사회를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 앞에서 언급

했듯이 앞으로 문화 예술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며, 또한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전쟁시대를 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열등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나 국가나 조직은 자연도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는 경쟁력있는 우수한 문화 예술 육성에 교단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청소년 교화

근래에 들어와 청소년문제가 빈번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또 그 양상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대책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당국에만 맡길 수 없으며 종교단체들이 보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불교교단에서도 청소년교화에 있어서 교당교화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사회에 직접 파고들어 청소년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럴려면 우선 (사)삼동청소년회가 보다 조직을 강화하여 YMCA나 보이스카우트와 같이 청소년수련활동, 단체활동, 상담, 비행청소년예방 등 각 분야에서 대사회교화를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사회는 도덕의 힘은 미약해지고 물질의 세력은 극히 커져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황 속에서 무방비 상태의 청소년들이 겪게 될 혼란과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원불교 교화는 장래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6) 노인 교화

한국사회는 1970년부터 노령화 추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서기 2000년경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69.3세, 여자 76.3세가 될 것이며, 2021년경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한국과 세계, 21세기위원회, 東亞日報社)

의학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수명이 연장되었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이제 노

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원불교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노인교화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대책수립이 요청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몇몇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보다 전체적 안목에서 그리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인교화를 위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 노인들의 정신교육, 고용, 수양, 요양, 건강, 기타 복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화합의 교화

미래 정보사회는 모든 장벽이 제거된 열린세상으로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만나 교류하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등도 서로 교류하게 될 것이고 그에따라 자연 서로간에 갈등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 통합의 원리와 누구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공통의 가치관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리고 그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원불교의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원불교의 일원주의 사상, 삼동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는 이 통합의 원리와 공통의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전해서 사회가 갈등과 투쟁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합과 협동의 관계가 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인재육성 발굴, 종교계(계간)발간, 철학적 이론정립, 교육 홍보용 책자 발간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 희망의 교화

지금은 새로운 천년을 맞는 대전환의 시기로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갖가지 예언들을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려 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히 기독교는 신약 요한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서술되어 있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전하며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기적과 같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질문명의 극심한

발달로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불교는 앞으로 참문명세계,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 오고 있다는 희망을 널리 전해서 세상의 기운과 인심을 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용 책자 발간,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맷는 말

깊이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이 주제가 새 천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 교단은 미래에 대해,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우려된다.

앞으로 전개될 정보사회에서는 적당히 떠밀려 가면서 세월만 가면 서서히 발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긴안목을 갖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 가지 않으면 우리의 교화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교단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교단 미래의 나아갈 바를 확실히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교역자의 의식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